

#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 예비척도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에 관한 연구

황옥경\* · 송미령\*\*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예비척도를 개발하고 그 내용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13개의 초기 범주를 도출하고, 아동상담, 초등교육, 아동발달, 아동복지·보호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내용타당도 비율(CVR), 수렴도, 합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전문가 평정의 내적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1개 범주 80개 문항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자녀 부모 양육 역할 및 책임 예비척도’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최종 범주는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신체 발달 지원, 건강한 생활 지원, 자기관리 지원,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또래 관계 맺기 지원,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현대 부모가 직면한 새로운 양육 과제를 예비척도 수준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출된 예비척도는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 초등학생 자녀, 부모 양육 역할, 양육 책임, 예비척도 개발, 델파이 조사, 부모교육

논문 투고일 : 2026. 05. 17.      최종심사일 : 2026. 06. 01.      게재확정일 : 2026. 06. 24.

\*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 화성의과학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Corresponding author : Song, Miryoung,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Namyangjungang-ro, Namyang-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E-Mail: songmr12@hsmu.ac.kr

##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자녀 양육 정책과 부모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기조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로 설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가족 기능의 약화와 부모 역할의 불분명화라는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교육계에서도 부모의 권리 행사와 책임 회피, 그리고 특정 영역에 편중된 양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 부모는 자녀를 개인적 성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양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Senior, 2014), 학교를 서비스 기관처럼 인식하는 태도와 맞물려 교권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교육부, 2023).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정서적·직접적 돌봄보다는 사교육비 지원이나 선행학습 제공 등 물질적 지원에 치우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장명림 외, 2015). 이처럼 부모 역할이 일부 영역에 집중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학령기는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이행하기 전의 시기로, 전인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2022년 고시되어 2024년부터 학년별로 순차 시행 중인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등교육의 목표를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22). 이는 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 일상생활 전반의 역량과 인성 함양이 학령기의 핵심 발달 과업임을 보여주며, 부모의 역할 또한 학업 지원을 넘어 전인 발달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주요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Piaget(1952)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여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고, 도덕성 발달 측면에서는 Kohlberg(1984)의 인습적 도덕 수준에 해당하여 규칙 준수와 사회적 규범 내면화가 중요해진다.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는 Erikson(1963)의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에 해당하여 또래 관계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며, 부모의 또래 관계 지원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El Nokali et al., 2010). 또한 자기관리 능력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고, 디지털 미디어 사용 비중도 크게 증가하므로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지도 역시

새로운 양육 책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역할은 자녀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어 성장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며(Henricson, 2008; Moyo, 201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된다(Lowe, 2005). 부모의 의무에는 자녀의 양육 전반뿐 아니라 환경, 학교 선택, 의료적 처치 등 자녀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포함되며(Henricson, 2008; Moyo, 2014), 자녀의 발달은 가족과 부모의 배경에 크게 좌우된다(Muller & Kerbow, 2018; Wright, Shields, Black, & Waxman, 2018).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 발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갈린스키(Ellen Galinsky, 1987)의 부모발달 단계론에서는 이 시기를 ‘설명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부모가 자녀의 탐구와 관심에 대해 정보 제공자, 해설자, 설명자로서 기능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으로 본다(Hakovirta & Hiilamo, 2012). 이러한 관점은 부모의 역할이 단순한 보호나 돌봄을 넘어 설명, 조정, 안내, 규범화의 기능을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부모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가족 구조와 양육 환경의 변화, 개별화 이론에 따른 책임 강화, 부모-학교 파트너십의 중요성에서 제기된다. 핵가족화, 한부모 가정 증가, 맞벌이 일반화 등으로 부모들은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육 책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핀란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양육을 전생애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Böök & Perälä-Littunen, 2008, 2010). 개별화 이론(individual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현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 발달과 미래 성취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신체적·정서적·교육적·사회적 발달 전반에 걸쳐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Beck & Beck-Gernsheim, 2002). 또한 초등교육에서 부모의 참여는 아동의 학업 성취와 사회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El Nokali et al., 2010), 부모의 적극적 교육 참여는 사회적 기술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부모 양육 역할 책임에 대한 선행연구는 개념적 접근과 측정도구 개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부모교육 연구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공동체 참여, 부모 역할 수행, 자녀 적응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박인자·조동혁·송희정, 2025; 윤지영, 2009; 전현곤, 2009).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나 개별 부모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적 척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개념적 측면에서 Aydin(2006)은 부모 책임을 ① 신체적 요구, ② 정서적 요구, ③ 교육적 요구, ④ 여가 및 놀이, ⑤ 훈육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Kiral, 2020). 핀란드 연구들은 부모 책임이 임신 이전부터 자녀가 독립

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됨을 보고하였고(Perälä-Littunen & Böök, 2012), 가정-학교 관계에서의 부모 책임으로 파트너십, 역할 모델, 권위자로서의 책임 등 4가지 테마를 제시하였다(Böök & Perälä-Littunen, 2015). 또한 Apetroaia와 Hill(2015)은 부모의 책임 신념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녀에 대한 침입적 행동이 증가하고 온정적 행동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양육 역할 책임의 적절한 수준과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측정도구 개발 측면에서는 Cronenwett 등(1988)의 Child Care Activities Scale(CCAS)과 Parental Role Preference Scale(PRPS), Gilbert와 Hanson의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s(PPRS) 등이 활용되어 왔다(박선정·고가연·최은영, 2015; 김민정, 2014). 국내에서도 황옥경 등(2021)이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 역할 책임 척도를 60 문항, 11개 하위요인으로 개발하였으며, 위생관리, 신체활동, 생존 및 건강관리, 인지발달,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기술 등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기존 척도들은 대체로 영유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서구 문화권에서 개발되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백순기·김도진, 2019; 허자연 외, 2020; 황옥경 외, 2021). 초등학교 시기에는 영유아기와는 다른 발달 과제와 교육적 요구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모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달라지므로(Kiral, 2020),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초등학교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양육 역할 책임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및 책임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예비척도를 개발하고, 그 내용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초기 범주를 도출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척도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개발된 예비척도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과 책임은 어떠한 구성요인(범주)으로 도출되는가?

연구문제 2. 도출된 범주와 예비문항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내용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초등학교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최종 척도의 범주와 문항 구성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및 책임 예비척도의 내용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 고찰 단계로 부모 양육 역할 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Aydin, 2006; Kiral, 2020; Muller & Kerbow, 2018; Wright, Shields, Black, & Waxman, 2018; 황옥경 외, 2021)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책임의 초기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3개의 범주를 추출하고, 각 범주별 측정 문항을 구성하여 총 80문항의 예비 척도를 작성하였다.

둘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 단계로 개발된 예비 척도의 범주 및 문항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동상담, 초등교육, 아동발달, 사회복지, 아동보호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2024년 11월 중순부터 2주간, 2차 조사는 2025년 1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 단계로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수렴도, 합의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범주 및 문항을 확정하였다.

### 2. 델파이 패널 조사지 및 패널 선정

#### 1) 델파이 패널 조사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지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책임의 13개 범주와 8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주는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신체 발달 지원', '건강한 생활 지원', '자조능력 발달 지원',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정서적 안정감 지원', '정서적 욕구 다루기', '또래관계 맺기 지원',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의 13개이며, 각 범주별 문항은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5문항), ‘신체 발달 지원’(5문항), ‘건강한 생활 지원’(7문항), ‘자조능력 발달 지원’(5문항),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4문항),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9문항), ‘정서적 안정감 지원’(5문항), ‘정서적 욕구 다루기’(5문항), ‘또래관계 맺기 지원’(8문항),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10문항),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7문항),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5문항),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5문항)로 총 8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은 5점 서열척도(1점: 매우 부적합하다 ~ 5점: 매우 적합하다)로 문항별 적합도를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문항 수정 제안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응답란을 함께 구성하였다.

## 2) 델파이 조사 패널 선정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이 반복적인 응답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Linstone & Turoff, 1975),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에 널리 활용된다. 전문가 패널의 적절한 구성과 이탈 방지는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이다(송달용·이용환, 2008). 델파이 연구에서 패널의 수는 일반적으로 50명 이하이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5~20명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윤조·이용환,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상담, 교육, 발달, 복지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배경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 패널

분야	인원	경력	비고
아동 상담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3	26~30년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아동 상담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아동 교육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6	5~24년	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관련 연구자 등으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아동 발달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2	13~30년	아동보육, 유아 교육 학계 전문가
아동 복지, 보호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4	8~13년	사회복지, 아동보호 변호사 등 실천현장 및 학계 전문가
계	15	5~30년	

### 3. 자료 분석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책임 척도의 범주 및 각 범주별 문항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예비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폐쇄형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5점 서열척도로 문항별 적합도를 조사하였다. 통계 프로그램 SPSS 24.0을 이용,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사분위수 등을 활용하여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 CVR 이하 CVR), 타당성 동의자 수, 수렴도 및 합의도, 평균 및 표준편차, 전문가 평정의 내적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차 델파이 조사 완료 후 연구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2차 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첫째, CVR이 0.60 미만의 범주 및 문항은 전문가 개방형 의견을 검토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둘째, CVR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서 개념적 중복이나 명칭의 부적절성이 지적된 경우 연구진 내부 회의를 거쳐 통합 또는 수정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이 추가를 제안한 내용은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 후 신규 문항으로 반영하였다.

CVR은 ‘타당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와 참여한 전체 전문가 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이다. Ayre와 Scally(2014)는 전문가 수에 따라 CVR의 최소값과 타당성 동의자 수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CVR은 0.60이상, 타당성 동의자 수는 12명 이상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항의 경우, 전문가의 개방형 의견, 수렴도, 합의도, 평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항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 3.0 이상이고 개방형 의견에서 수정 방향이 제시된 경우에는 문항을 수정하여 2차 조사에 재포함하였으며, 다른 문항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개념적 모호성이 지적된 경우에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 의견의 수렴 및 합의 정도를 분석하여 문항 타당도를 확인하였다(이종성, 2006). 수렴도<sup>1)</sup>와 합의도<sup>2)</sup>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중앙값, 제1사분위(25백분위수), 제3사분위(75백분위수)를 구해서 판단하였으며,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타당한 문항으로 해석하였다. 안정도는 1차와 2차 조사 간 응답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각 문항의 표준편차 변화율로 산출하였다. 안정도가 0.8 이하일 경우 전문가 패널 응답이 안정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종성, 2006). 아울러 평균

1) 수렴도=(Q3-Q1)/2

2) 합의도=1-((Q3-Q1)/중위값)

및 표준편차를 함께 고려하여 문항을 채택하였는데, 선행연구(이민홍·이재정, 2011; 차성미 외, 2010)에서는 평균 3~3.5점 이상, 표준편차 1.0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3점 이상, 표준편차 1.0 미만으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평정의 내적 일관성 값은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는 실제 초등학생 부모 표본이 아닌 전문가 패널 15명의 적합도 평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값으로, 각 범주 내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 평정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은 향후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될 심리측정 연구에서 확인될 척도 신뢰도와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완성된 척도의 신뢰도 기준은 Nunnally와 Bernstein(1994)이 제시한 0.7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0.80 이상을 양호한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DeVellis, 2016). 그러나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예비척도 개발 단계이므로, 전문가 패널의 규모와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0.60 이상을 참조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는 델파이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다(이종성, 2006; Vande Ven & Ferry, 1980).

### III. 연구결과

#### 1. 문헌고찰을 통한 초기 범주 도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의 첫 단계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포괄적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Aydin(2006)의 5가지 부모 책임 영역(신체적 요구, 정서적 요구, 교육적 요구, 여가 및 놀이 요구, 훈육)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사회의 변화된 양육 환경과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확장된 범주 체계를 구성하였다. 핀란드의 가정-학교 관계 연구(Böök & Perälä-Littunen, 2015)에서 제시된 파트너십 책임, 역할 모델 책임, 권위자로서의 책임 개념과 핀란드 아동 양육비 정책 연구(Hakovirta & Hiilamo, 2012)의 공동 양육과 아동의 권리 관점을 종합하여, 전통적인 양육 책임 범주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였다. 특히,

Gillies(2008)가 제시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부모 책임 구성과 Perälä-Littunen & Böök(2012)의 부모 책임 시작과 종료에 관한 관점을 통합하여, 초등학생 시기의 특수한 발달적 요구를 반영한 범주를 도출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요인들을 초등학생 발달 과업과 부모 역할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확정하여 13개의 초기 범주를 구성하였다. 첫째, 신체적 돌봄 및 건강 관련 범주이다. Aydin(2006)이 제시한 부모 책임의 '신체적 요구(영양·건강·위생)'와 황옥경 외(2021)의 영유아기 척도에서 도출된 '위생관리', '신체활동', '생존 및 건강관리' 하위요인을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신체 발달 지원', '건강한 생활 지원'의 3개 범주를 도출하였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영유아기와 달리 아동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는 자립적 습관 형성이 중요하고, 신체 발달과 관련하여 고학년의 경우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부모의 안내 역할이 새롭게 요구된다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둘째, 자기관리 및 자율성 관련 범주이다. 황옥경 외(2021)의 '자조능력' 하위요인과 Zimmerman(2002)의 자기조절학습 이론,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자기관리 지원'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범주는 단순한 자조 기술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부모가 지원하는 역할을 포괄한다.

셋째, 학업 및 인지언어 발달 관련 범주이다. Aydin(2006)의 '교육적 요구(학교 등록·교육감시·학교 협력)', Böök과 Perälä-Littunen(2015)의 가정-학교 관계에서의 파트너십 책임, El Nokali 등(2010)의 부모 교육 참여 연구를 통합하여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범주를 구성하였다. 갈린스키(Galinsky, 1987)의 부모발달단계론에서 초등학생 시기를 부모가 자녀의 탐구와 관심에 대한 정보 제공자·해설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설명하는 시기'로 규정한 것도 이 범주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넷째, 정서 발달 관련 범주이다. Aydin(2006)의 '정서적 요구(공정한 대우·정서적 지지)'와 황옥경 외(2021)의 '정서적 안정감'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하되, Eisenberg와 Spinrad(2004)의 정서 사회화 이론과 Katz와 Gottman(1997)의 정서 코칭 이론을 근거로 부모의 정서 지원 역할을 '정서적 안정감 지원'과 '정서적 욕구 다루기'의 2개 범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전자는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통한 정서적 기반 제공에, 후자는 아동의 정서 표현·인식·조절 능력 함양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다섯째, 사회성 발달 관련 범주이다. 황옥경 외(2021)의 '사회적 기술' 하위요인과 El Nokali 등(2010)의 부모 참여와 아동 사회정서 발달 연구, Erikson(1963)의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 이론을 근거로 '또래 관계 맺기 지원' 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Aydin(2006)의 '훈육(공

정적 학교 태도·일관된 훈육·의사소통 기술 개발)과 Kohlberg(1984)의 도덕 발달 이론에서 초등학생이 인습적 도덕 수준으로 발달하는 시기임을 근거로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범주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현대 사회의 새로운 양육 과제를 반영한 범주이다.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확산과 초등학생의 미디어 사용 증가라는 현대적 맥락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을 Gillies(2008)의 문화적 맥락에서의 부모 책임 구성 관점과 Kiral(2020)의 부모 책임 사례 연구를 근거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범주를 새롭게 도출하였다. 아울러 Kiral(2020)의 아동 보호 관련 부모 책임과 Moyo(2014)의 아동 권리 관점을 근거로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및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의 2개 범주를 구성하였다.

일곱째,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범주이다. Coleman(1988)의 사회적 자본 이론, Böök과 Perälä-Littunen(2015)의 가정-학교 관계 연구,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가족 가치를 근거로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 범주는 서구의 개별화 이론(Beck & Beck-Gernsheim, 2002)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족 정체성 전달과 세대 간 유대 형성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13개의 초기 범주를 구성하였다. ①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② 신체 발달 지원, ③ 건강한 생활 지원, ④ 자조능력 발달 지원, ⑤ 자기 보호 역량 발달 지원, ⑥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⑦ 정서적 안정감 지원, ⑧ 정서적 욕구 다루기, ⑨ 또래 관계 맺기 지원, ⑩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⑪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⑫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⑬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 각 범주별로 총 80개의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 타당성을 검증 자료로 활용되었다.

## 2.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에 대한 타당성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예비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는 아동상담(3명), 아동교육(6명), 아동발달(2명), 아동복지·보호(4명) 분야의 전문가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의 경력은 5년에서 30년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현장과 학계의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에 대한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 적합도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	구분	평균	표준 편차	CVR (≥.60)	동의 (n≥12)	수렴도 (≤0.5)	합의도 (≥0.75)	안정도 (≤0.8)	내적 일관성	
1.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1차 0.88 2차 0.95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2. 신체 발달 지원	1차	4.40	0.91	0.47	11	0.50	0.75	0.21		
	2차	4.87	0.50	0.87	14	0.00	1.00	0.10		
3. 건강한 생활 지원	1차	4.47	0.92	0.73	13	0.50	0.80	0.20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4. 자기관리지원 (1차) 자조능력 발달 지원	1차	4.27	0.70	0.73	13	0.50	0.75	0.16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5.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삭제)	1차	4.20	0.94	0.33	10	1.00	0.60	0.22		
5.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1차	4.33	0.98	0.60	12	0.50	0.80	0.23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6.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1차) 정서적 안정감 지원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1차) 정서적 욕구 다루기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7. 또래관계 맺기 지원	1차	4.53	0.74	0.73	13	0.50	0.80	0.16		
	2차	4.87	0.50	0.87	14	0.00	1.00	0.10		
8.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1차	4.60	0.63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9.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1차	4.33	0.82	0.60	12	0.50	0.80	0.19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10.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1차	4.67	0.62	0.87	14	0.25	0.90	0.13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11.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1차)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	1차	4.07	0.96	0.47	11	0.75	0.63	0.24		
	2차	4.53	0.62	1.00	15	0.50	0.80	0.14		

1차 조사 결과, 13개 범주 중 11개 범주가 CVR 0.6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CVR=0.33)과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CVR=0.47)는 기준에

미달하였다. 전문가들의 개방형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은 내용이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자기보호 역량은 부모가 직접 수행하는 양육 행동이라기보다 아동이 점차 발달시켜 나가는 자율적 능력에 더 가깝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범주를 삭제하고, 부모의 직접적 역할로 해석 가능한 내용은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의 문항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 범주(CVR=0.47)에 대해서는 범주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중요성에는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가풍’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 아동복지·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가풍’은 전통적·권위주의적 가족 이미지를 연상시켜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현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아동발달 및 초등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가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므로 해당 범주 자체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진은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현대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가족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그 결과 2차 조사에서 CVR 1.00, 전원 동의를 획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서적 안정감 지원’(CVR=0.87)과 ‘정서적 욕구 다루기’(CVR=0.87)가 개념적으로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범주 모두 CVR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부모의 양육 행동에서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동이 불안을 느낄 때 위로하는 행동과 울거나 화낼 때 욕구를 살피는 행동이 실제 양육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정서적 안정 제공과 정서 표현·조절 지원이 통합적 정서 코칭 행동으로 작동한다는 정서 사회화 이론과도 일치한다 (Eisenberg & Spinrad, 2004). 아울러 ‘자조능력 발달 지원’은 현행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기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와 연구진 내부 회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CVR 기준에 미달한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은 삭제하였다. 해당 내용은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으며, 부모의 직접적 역할보다는 아동의 자율적 능력 발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 지원’과 ‘정서적 욕구 다루기’는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로 통합하였다. 셋째, ‘자조능력 발달 지원’은 ‘자기관리 지원’으로,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 심어주기’는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으로 각각 수정하였다.

수정된 11개 범주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범주가 CVR 0.60 이상, 타당성 동의

자 수 12명 이상, 수렴도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 안정도 0.8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특히 ‘신체 발달 지원’은 2차 성징 이해 지원 문항을 추가하고 범주의 개념적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CVR이 0.47에서 0.87로 상승하였다.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은 용어를 수정하여 개념을 명료화함으로써 CVR이 0.47에서 1.00으로 향상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역시 문항을 구체화한 결과 CVR이 0.60에서 0.87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범주 명칭의 정교화와 문항 내용의 구체화가 전문가 합의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동일 패널의 반복 참여에 따른 영향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방법론적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로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신체 발달 지원’, ‘건강한 생활 지원’, ‘자기관리 지원’,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또래 관계 맺기 지원’,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의 11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별 문항에 대한 타당성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과 책임 예비척도는 11개 범주에 대해 총 80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 문항 수는 범주의 포괄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였다.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범주가 10개 문항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은 9개 문항, ‘또래 관계 맺기 지원’과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는 각각 8개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 배분은 초등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과 부모 역할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발달은 Kohlberg(1984)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라 초등학생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범주에 가장 많은 문항을 배정하였다.

범주 수가 13개에서 11개로 축소되었음에도 총 문항 수가 80개로 유지된 것은 1차 조사에서 ‘자기보호 역량 발달 지원’의 4개 문항이 삭제된 반면, ‘정서적 안정감 지원’(5문항)과 ‘정서적 욕구 다루기’(5문항)가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10문항)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문항도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 발달 지원’ 범주에 “아이가 신체 발달(2차 성징 등)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문항이,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에 “위험한 환경 및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삭제된 문항과 추가된 문항이 상쇄되어 최종 문항 수는 80개로 유지되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과 책임 범주별 문항의 타당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총 80개 초기 문항의 대부분이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 CVR 0.60 미만의 일부 문항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표 3> 부모 양육 역할 책임 범주별 측정 문항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문항	구분	평균	표준편차	CVR (≥.60)	동의 (n≥12)	수렴도 (≤0.5)	합의도 (≥0.75)	안정도 (≤0.8)	내적 일관성
1.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1) 손 씻기, 양치질하기, 용변처리 등 스스로 하는 청결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1차	4.47	0.99	0.60	12	0.25	0.90	0.22	1차 0.83 2차 0.87
		2차	4.73	0.77	0.87	14	0.00	1.00	0.16	
	2) 아이에게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고 설명해준다.	1차	4.13	0.99	0.73	13	0.50	0.80	0.24	
		2차	4.60	0.49	1.00	15	0.50	0.80	0.11	
	3) 아이에게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준다.(삭제)	1차	4.47	0.99	0.47	11	0.75	0.63	0.17	
		2차								
	3) 아이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치과 검진 포함)을 받도록 한다.	1차	4.07	0.74	0.73	12	0.50	0.80	0.27	
		2차	4.60	0.88	0.87	14	0.00	1.00	0.19	
	4) 아이의 방 집안 환경 등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1차	4.40	0.74	0.73	13	0.50	0.80	0.17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2. 신체 발달 지원	1) 아이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1차 0.83 2차 0.90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2) 아이가 운동능력을 기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차	4.07	1.16	0.33	10	1.00	0.60	0.29	
		2차	4.73	0.57	0.87	14	0.00	1.00	0.12	
	3) 아이와 함께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한다.	1차	4.47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4)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차	4.47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5) 아이에게 신체 움직임과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1차	4.47	0.83	0.60	12	0.50	0.80	0.19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6) 아이가 신체 발달(2차 성징 등)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추가)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3. 건강한 생활 지원	1) 아이가 영양이 고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4.47	0.64	0.87	14	0.50	0.80	0.14	1차 0.79 2차 0.84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2) 아이가 식사와 간식을 무분별하게 먹지 않도록 지도한다.	1차	4.67	0.49	1.00	15	0.50	0.80	0.10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3) 실내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을 아이에게 맞도록 유지한다.	1차	4.47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4) 아이가 등교하거나 캠프에 참가 등을 하기 전에 열이 나는지 등과 같은 신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1차	4.33	0.72	0.73	13	0.50	0.75	0.17	
		2차	4.53	0.62	0.87	14	0.50	0.80	0.14	

	5) 전염병수족구, 눈병 등을 앓고 있거나 이쁜 재우는 가정에서 돌본다.	1차	4.47	0.74	0.73	13	0.50	0.80	0.17	
		2차	4.73	0.44	1.00	15	0.25	0.90	0.09	
	6) 충분한 수면을 위해 아이에게 이른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1차	4.60	0.74	0.73	13	0.25	0.90	0.16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7)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다.	1차	4.80	0.56	0.87	14	0.00	1.00	0.12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4. 자기 관리 지원	1) 식사를 스스로 하며 사용한 식기와 자리를 정돈하도록 지도한다.	1차	4.60	0.63	0.87	14	0.50	0.80	0.14	1차 0.92 2차 0.82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2) 옷을 계절과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차	4.60	0.74	0.73	13	0.25	0.90	0.16	
		2차	4.73	0.57	0.87	14	0.00	1.00	0.12	
	3) 아침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4) 자기 공간(예방이나 물건들을 정리 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1차	4.80	0.56	0.87	14	0.00	1.00	0.12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5) 준비물, 책가방, 소지품 등을 스스로 챙기도록 격려한다.	1차	4.67	0.62	0.87	14	0.25	0.90	0.13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5. 학업 및 언어 발달 지원	1)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독서습관을 길러준다.	1차	4.47	0.83	0.60	12	0.50	0.80	0.19	1차 0.90 2차 0.90
		2차	4.67	0.70	0.73	13	0.00	1.00	0.15	
	2)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아이와 의견을 나눈다.	1차	4.27	0.80	0.60	12	0.50	0.75	0.19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3) 아이의 경험에 대하여 대화를 한다.	1차	4.47	0.83	0.73	13	0.50	0.80	0.19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4)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 조립용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다.	1차	4.00	0.93	0.73	13	0.50	0.75	0.23	
		2차	4.33	0.70	0.73	13	0.50	0.75	0.16	
	5) 아이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주고받는다.	1차	4.16	1.10	0.47	11	0.75	0.63	0.33	
		2차	4.53	0.62	0.87	14	0.50	0.80	0.14	
	6)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차	4.60	0.63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7) 아이에게 수학적, 과학적 사고력 발달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1차	4.40	0.74	0.73	13	0.50	0.80	0.17	
		2차	4.67	0.70	0.73	13	0.00	1.00	0.15	
	8) 학교 과제를 점검하고 확인해준다.	1차	4.53	0.74	0.73	13	0.50	0.80	0.16	
		2차	4.67	0.70	0.73	13	0.00	1.00	0.15	
9) 아이에게 맞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	1차	4.60	0.91	0.73	13	0.00	1.00	0.20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6.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1)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만들어 준다.	1차	4.73	0.59	0.87	14	0.00	1.00	0.13	1차 0.93/ 0.81 2차 0.95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2) 아이가 자신의 정서(즐거움, 애정, 울음, 화남 등)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3)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안, 두려움, 무서움, 슬픔을 느낄 때 위로해준다.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4)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돕는다.	1차	4.67	0.72	0.87	14	0.00	1.00	0.16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5) 아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도록 도와준다.	1차	4.60	0.74	0.73	13	0.25	0.90	0.16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6) 아이가 울거나 화를 낼 때, 아이의 욕구를 살펴본다.	1차	4.73	0.59	0.87	14	0.00	1.00	0.13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7)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67	0.49	1.00	15	0.50	0.80	0.10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8) 아이에게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도록 격려해준다.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9) 아이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해준다.	1차	4.40	0.99	0.60	12	0.50	0.80	0.22	
		2차	4.87	0.50	0.87	14	0.00	1.00	0.10	
	10)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1차	4.60	0.91	0.73	13	0.00	1.00	0.20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7. 또래 관계 맺기 지원	1) 아이에게 친구들과 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차	4.53	0.74	0.73	13	0.50	0.80	0.16	1차 0.89 2차 0.93
		2차	4.73	0.68	0.73	13	0.00	1.00	0.14	
	2) 아이가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안내한다.	1차	4.60	0.63	0.87	14	0.50	0.80	0.14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3) 아이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격려한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4) 아이가 어떤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협동하도록 격려한다.	1차	4.87	0.35	1.00	15	0.00	1.00	0.07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5) 아이에게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절충, 타협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60	0.63	0.87	14	0.50	0.80	0.14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6) 아이에게 이기고 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47	0.83	0.60	12	0.50	0.80	0.19		
	2차	4.53	0.81	0.73	13	0.25	0.90	0.18		
7)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살핀다.	1차	4.80	0.56	0.87	14	0.00	1.00	0.12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8) 아이가 친구에게 자기 생각과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1차	4.80	0.56	0.87	14	0.00	1.00	0.12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8.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1) 아이에게 지켜야 할 식사 예절, 교통 규칙, 학교 규칙 등이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73	0.59	0.87	14	0.00	1.00	0.13	1차 0.86 2차 0.89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2) 아이에게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47	0.74	0.73	13	0.50	0.80	0.17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3)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지낼 때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73	0.46	1.00	15	0.25	0.90	0.10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4) 아이가 사람마다 다른	1차	4.73	0.46	1.00	15	0.25	0.90	0.10	

	특성(외모, 언어, 인종, 종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도록 알려준다.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5)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6) 아이에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1차	4.87	0.35	1.00	15	0.00	1.00	0.07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7) 아이가 자기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1차	4.53	0.83	0.73	13	0.25	0.90	0.18	
		2차	4.60	0.88	0.87	14	0.00	1.00	0.19	
	8)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아이에게도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67	0.49	1.00	15	0.50	0.80	0.10	
		2차	4.73	0.57	0.87	14	0.00	1.00	0.12	
	9) 아이에게 “고맙다/감사하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60	0.74	0.73	13	0.25	0.90	0.16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10) 아이에게 “미안하다/죄송하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려준다.	1차	4.60	0.74	0.73	13	0.25	0.90	0.16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9.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1) 아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규칙을 세우고, 지도하도록 한다.	1차	4.79	0.43	1.00	15	0.00	1.00	0.09	1차 0.94 2차 0.95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2) 아이에게 화업과 발달에 유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1차	4.67	0.62	0.87	14	0.25	0.90	0.13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3) 아이에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1차	4.67	0.62	0.87	14	0.25	0.90	0.13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4) 아이에게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차	4.87	0.35	1.00	15	0.00	1.00	0.07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5) 아이에게 디지털 미디어 기기 사용 예절에 대해 안내한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6)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상황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한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80	0.40	1.00	15	0.00	1.00	0.08		
7) 아이가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한다.	1차	4.53	0.64	0.87	14	0.50	0.80	0.14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10.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1) 아이가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1차 0.92 2차 0.93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2) 아이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3) 아이가 성 폭력에 노출되	1차	4.73	0.46	1.00	15	0.25	0.90	0.10	

	지 않도록 돕는다.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4)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5)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과 폭력 등을 경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1차	4.80	0.41	1.00	15	0.00	1.00	0.09	
		2차	4.93	0.25	1.00	15	0.00	1.00	0.05	
	6) 위험한 환경 및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차	4.67	0.62	1.00	15	0.25	0.90	0.13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11.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1) 가정에서 아이가 담당해야 할 집안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역할을 부여한다.	1차	4.73	0.46	1.00	15	0.25	0.90	0.10	1차 0.92 2차 0.96
		2차	4.87	0.34	1.00	15	0.00	1.00	0.07	
	2)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돕는다.	1차	4.67	0.62	0.87	14	0.25	0.90	0.13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3) 우리 가족이 지켜오는 가치를 자녀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1차	4.47	0.92	0.73	13	0.50	0.80	0.20	
		2차	4.67	0.70	0.73	13	0.00	1.00	0.15	
	4)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1차	4.33	0.72	0.73	13	0.50	0.75	0.17	
		2차	4.80	0.54	0.87	14	0.00	1.00	0.11	
	5) 가족이 유지하고 있는 고유 의 문화와 규칙을 알려준다.	1차	4.47	0.83	0.87	14	0.50	0.80	0.19	
		2차	4.67	0.60	0.87	14	0.25	0.90	0.13	

1차 델파이 조사에서 80개 문항 중 대부분이 양호한 타당도를 보였으나, 일부 문항은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VR 기준(0.60 이상)에 미달한 문항은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범주의 “아이에게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준다”(CVR=0.47), ‘신체 발달 지원’ 범주의 “아이가 운동능력을 기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CVR=0.33),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범주의 “아이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주고받는다”(CVR=0.47) 등이었다. 해당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의 개방형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아이에게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알려준다”는 동일 범주의 다른 문항인 “손 씻기, 양치질하기, 용변처리 등 스스로 하는 청결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와 내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두 문항이 측정하는 부모 행동의 차이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하는 “아이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치과 검진 포함)을 받도록 한다”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아이가 운동능력을 기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운동능력’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부모의 구체적 지원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2차 조사에서는 다른 신체활동 지원 문항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도록 문항을 구체화하였고, 그 결과 CVR 0.87을 획득하였다. “아이와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상황과 맥락에 맞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부모가 실제로 수행해야 할 행동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차 조사에서는 “아

이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로 수정하여 행동 지향성을 높였고, CVR 0.87을 획득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항들에 대해 일부 문항이 다른 문항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 때 부모의 직접적 개입보다 간접적 지원이 적절한 영역이 있다는 점, 문항 표현이 모호하여 측정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수정된 문항들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다. 모든 범주에서 전문가 평정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은 0.8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문가 패널의 평정 일관성을 보여주는 값으로 실제 부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척도 신뢰도와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DeVellis, 2016).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alpha=0.95$ ),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alpha=0.95$ ),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alpha=0.96$ ) 범주에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여, 각 범주가 비교적 단일한 개념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은 평균 4.0 이상, CVR 0.73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의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다”(평균 4.93, CVR 1.00)와 ‘또래 관계 맺기 지원’ 범주의 “아이가 어떤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협동하도록 격려한다”(평균 4.93, CVR 1.00)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렴도와 합의도 역시 모든 문항이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다수의 문항에서 수렴도 0.0, 합의도 1.0의 완전한 합의를 보여 전문가 간 일치도가 매우 높았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위생 및 청결한 생활 지원’ 범주에서는 초기 5개 문항 중 1개가 삭제되었고, “아이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치과 검진 포함)을 받도록 한다”가 추가되었다. 이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현대 부모 양육 책임의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한다. ‘신체 발달 지원’ 범주에서는 “아이가 신체 발달(2차 성징 등)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가 새롭게 추가되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신체 변화에 대한 부모의 안내 역할이 중요함을 반영하였다.

‘건강한 생활 지원’ 범주의 모든 문항은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 특히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다”가 평균 4.9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자기관리 지원’ 범주에서도 모든 문항이 높은 타당성을 보였고, 특히 “자기 공간이나 물건들을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준다”가 평균 4.93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학업 및 인지·언어발달 지원’ 범주의 9개 문항은 모두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특히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평균 4.87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 조립용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한다”는 평균

4.3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직접적인 놀이 참여보다 학습 안내자 역할이 더 중시됨을 시사한다.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범주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일관성이 0.95로 가장 높았다. 모든 문항이 높은 타당성을 보였고, 특히 “아이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만들어 준다”와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가 평균 4.93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래관계 맺기 지원’ 범주는 8개 문항 모두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협동과 의사표현 관련 문항들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범주의 10개 문항도 모두 높은 타당성을 보였으며, 특히 “아이에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가 평균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범주는 7개 문항 모두 높은 타당성을 보였고, 내적 일관성은 0.95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현대 부모의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범주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이 평균 4.87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다”와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과 폭력 등을 경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가 평균 4.9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범주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 일관성은 0.96으로 매우 높았다. “가정에서 아이가 담당해야 할 집안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역할을 부여한다”가 평균 4.87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정 과정은 현대 아동발달 이론과 양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다.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로의 확장은 부모가 단순한 돌봄 제공자를 넘어 건강 관리자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2차 성장 관련 문항의 추가는 초등학교 시기가 단순한 아동기가 아니라 청소년기로의 전환 시기임을 반영한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관련 문항의 높은 타당성은 21세기 부모가 전통적 양육 역할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역량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및 책임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예비척도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가족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부모 양육 책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목표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13개의 초기 범주와 80개 문항을 도출한 후, 아동상담·초등교육·아동발달·아동복지·보호 분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11개 범주 80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 양육 역할 및 책임 예비척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학문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이 전통적 돌봄을 넘어선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문가 합의를 통해 내용타당성도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11개 범주는 Aydin(2006)이 제시한 5개 영역(신체적 요구, 정서적 요구, 교육적 요구, 여가·놀이 요구, 훈육)을 토대로,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확장·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부모 양육 책임에 대한 기존 서구 중심의 관점을 보완하고,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예비적 이론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Galinsky의 부모발달단계론에서 '설명하는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예비척도 차원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둘째, 전통적 양육 책임 영역이 현대적 관점에서 세분화되고 재해석되었다. '위생 및 청결', '신체 발달', '건강한 생활' 범주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 충족을 넘어 예방적 건강관리와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예: 2차 성징)를 포함하는 적극적 역할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자기관리 지원' 범주는 단순한 자조 기술의 수준을 넘어 Zimmerman(2002)의 자기조절학습 이론과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하여, 아동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직접적 돌봄 제공자에서 아동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안내자 및 조력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문항 정교화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21세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모 역할 책임 영역이 부각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범주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CVR 0.87, 신뢰도 0.95의 높은 값을 확보한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양육하는 현대 부모들이 직면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예비적도 차원에서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사이버 시민성 교육까지 부모 책임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을 예비적도 차원에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지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정서적 안정감 지원 및 정서적 욕구 다루기' 범주는 Katz와 Gottman(1997)의 정서 코칭 이론과 Morris 등(2007)의 정서 사회화 모델을 반영하여,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서 인식·표현·조절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실증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정서적 안정감 지원'과 '정서적 욕구 다루기'가 개념적으로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 것은, Eisenberg와 Spinrad(2004)의 정서 사회화 이론에서 두 개념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또래 관계 맺기 지원' 범주의 높은 타당성은 초등학교 시기 사회성 발달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양육 책임의 고유성이 반영되었다.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범주의 도출은 Beck과 Beck-Gernsheim(2002)이 제시한 서구의 개별화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가족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 양육 책임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조부모 및 친인척과의 관계 유지를 통한 사회적 자본(Coleman, 1988)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한국적 양육 모델의 고유한 특성을 예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11개 범주는 발달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내용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신체 발달 지원' 범주의 2차 성장 관련 내용은 고학년 부모 대상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별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안내' 범주의 높은 타당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미디어 사용 지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버 안전 교육,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부모교육 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 나아가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범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부모 세대까지 포함하는 3세대 통합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 정체성 강화와 세대 간 소통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저출산 시대의 가족 지원 정책과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부모의 양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문화와 가족공동체 의식' 범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 정책 측면에서는 '또래 관계 맺기 지원'과 '사회적 규범 및 가치관 발달 지원' 범주가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교사 간 체계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부모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교육 자료와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척도 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전문가 패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특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과대 또는 과소 대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척도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및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실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척도의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물은 완성된 척도가 아닌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예비척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80개 문항은 현장 활용 시 응답자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문항 축약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므로 다른 문화권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대규모 초등학생 부모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80개 문항의 축약 및 기준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렴타당도·판별타당도·준거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심리측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예비척도를 일반 부모 집단에 적용하여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척도로 발전시키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완성된 척도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도구로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시대적·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11개의 핵심 범주를 도출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양육 역할 및 책임 예비척도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척도가 향후 심리측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면,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가족 지원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자료로서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2).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2].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3). 2022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세종: 교육부
- 김민정(2014). 부모역할 책임의식이 부모 양육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미국거주 다국적 부모, 한국계-미국인 부모와 한국 거주 한국 부모 비교-. *한국아동가족복지연구*, 19(4), 651-667.  
<https://doi.org/10.13049/kfwa.2014.19.4.651>
- 박선정·고가연·최은영(2015). 유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Child Health Nurs Res*, 21(2), 91-97. <http://dx.doi.org/10.4094/chnr.2015.21.2.91>
- 박인자·조동혁·송희정. (2025). 부모 그림이 초등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율성지지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4), 5-27.
- 백순기·김도진(2019).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0), 267-274.  
<https://doi.org/10.15207/JKCS.2019.10.10.267>
- 송달용·이용환(2008). 특성화 고등학교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115-135.  
<https://doi.org/10.23840/agehrd.2008.40.3.115>
- 이민홍·이재정(2011). 부산시 고령친화도 평가 연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이윤조·이용환(2009).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277-296. <https://doi.org/10.23840/agehrd.2009.41.4.277>
- 이중성(2006). *델파이 방법(연구방법 21)*. 서울: 교육과학사.
- 윤지영(2009). 부모 리더십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6(1), 49-69.
- 장명림·김홍원·지성애·염지숙·정정희·김선미(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돌아보기
- 전현곤(2009). 부산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학교공동체형성 실태조사. *부모교육연구*, 6(1), 23-47.
- 차성미·정라나·정서진·김광옥·한귀정·이새롭(2010).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한국의 맛과 음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6(2), 155-164.
- 허자연·이민영·이미경·엄정호(2020).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생의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모구성에 따른 다집단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2), 161-176.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2.161>
- 황옥경·정연아·명준희·송미령(2021). 부모의 양육 역할 책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2), 440-451. <https://doi.org/10.5762/KAIS.2021.22.2.440>
- 황윤세 (2020).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 발달단계. 열린부모교육학회 부모교육 칼럼, 2020년 8월. GNI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gnschool.gni.kr/board/columnView.gn?boardSq=105>
- Apetroaia, A., & Hill, J. (2015). Parental responsibility beliefs: Associations with parental anxiety and behaviours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 26(12), 3328 - 3339. <https://doi.org/10.1007/s10826-015-0248-7>
- Aydin, I. (2006). *Ethics in education and teaching*. Ankara: PegemAkademi.
-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https://doi.org/10.1177/0748175613513808>
- Bandura, A. (Ed.). (1997).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https://doi.org/10.4135/9781446218693>
- Böök, M. L., & Perälä-Littunen, S. (2008). "Children need their parents more than a pizza in the fridge!" Parental responsibility in a Finnish newspaper. *Childhood*, 15(1), 74-88. <https://doi.org/10.1177/0907568207086836>
- Böök, M. L., & Perälä-Littunen, S. (2010). Vastuullisen vanhemman velvoitteet [The obligations of the responsible parent]. *Kasvatus*, 41(1), 41-52.
- Böök, M. L., & Perälä-Littunen, S. (2015). Responsibility in home - school relations: Finnish parents' views. *Children & Society*, 29(6), 615-625. <https://doi.org/10.1111/chso.1209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https://doi.org/10.1086/228943>
- Cronenwett, L. R., Sampsel, C. M., & Wilson, W. R. (1988). The Child Care Activities Scale and Parental Role Preference Scal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1(5), 301 - 308. <https://doi.org/10.1002/nur.4770110505>
- DeVellis, R. F. (2016).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4th ed.). Sage.
-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674.x>
- El Nokali, N. E., Bachman, H. J., & Votruba-Drzal, E. (2010). Parent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1(3), 988 - 1005.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0.01447.x>
- Galinsky, E. (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New York, NY: Addison-Wesley.
- Gilbert, L. A., & Hanson, G. R. (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03-212. <https://doi.org/10.2307/351309>
- Gillies, V. (2008). Childrearing, class and the new politics of parenting. *Sociology Compass*, 2(3), 1079-1095. <https://doi.org/10.1111/j.1751-9020.2008.00114.x>
- Hakovirta, M., & Hiilamo, H. (2012). Children's rights and parents' responsibilities: Child maintenance policies in Finland.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4(4), 286-303. <https://doi.org/10.1177/138826271201400405>
- Henricson, C. (2008). Governing parenting: is there a case for a policy review and statement of parent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Journal of law and society*, 35(1), 150-165.

- <https://doi.org/10.1111/j.1467-6478.2008.00419.x>
- Katz, L. F., & Gottman, J. M. (1997). Buffering children from marital conflict and dissolu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2), 157 - 17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602\\_4](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602_4)
- Kiral, B. (2020). A case study regarding of the parental responsibilities to their children.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5, 65 - 92. <https://dergipark.org.tr/en/download/article-file/957389>
- Kohlberg, L., & Candee, D. (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judgment to moral action.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52, 73.
- Linstone, H. A., & Turoff, M. (1975).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 LOWE, N. V. (2005). The Allocat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The Position in England and Wales. *Family Law Quarterly*, 39(2), 267 - 299.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McGraw-Hill.
- Morris, A.S., Silk, J.S., Steinberg, L., Myers, S.S. and Robinson, L.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Moyo, A. (2014). Balancing child participation rights, parental responsibility and state intervention in medical and reproductive decision-making under South African law.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pe Town.
- Muller, C., & Kerbow, D. (2018). Parent involvement in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In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pp. 13-42). Routledge.
- Perälä-Littunen, S., & Böök, M. L. (2012). The beginning and end of parental responsibility: Finnish parents' view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3(6), 925-941. <https://doi.org/10.3138/jcfs.43.6.925>
- Senior, J. (2014). *All joy and no fun: The paradox of modern parenthood*. Hachette, UK: Ecco Press.
- Wright K. B., Shields S. M., Black K., Banerjee M., Waxman H. C. (2018). Teacher perceptions of influence, autonomy,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Race to the Top era.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26, 62. <https://doi.org/10.14507/epaa.26.3449>
-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41(2), 64-70. [https://doi.org/10.1207/s15430421tip4102\\_2](https://doi.org/10.1207/s15430421tip4102_2)

Abstract

## Development and Content Validation of a Preliminary Scale for Paren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Hwang, Ok Kyeung\* · Song, Mi Ryou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examine the content validity of a preliminary scale designed to systematically measure paren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flecting rapid social change, digitalization, and South Korea's socio-cultural context.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13 initial categories were derived, and a two-roun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15 experts in child counseling, elementary education, child development, and child welfare/prote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convergence, consensu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experts' inter-rater consistency. Consequently, a final scale comprising 80 items across 11 categories was established. The final categories consist of Support for Hygiene and Cleanliness, Support for Physical Development, Support for Healthy Living, Support for Self-Management, Support for Academic and Cognitive-Linguistic Development, Support for Emotional Stability and Managing Emotional Needs, Support for Peer Relationship Building, Support for Social Norms and Values Development, Guidance on Digital Media Usag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Hazards, and Family Culture and Sense of Family Community.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and the evolving parenting challenges faced by contemporary parents. The resulting preliminary scale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al instrument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evidence-based family support policy development.

**Keywords:** elementary school children, parenting role, parenting responsibility, preliminary scale development, delphi method, parent educa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Medi Social Welfare,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